광주 효천2지구 국민임대 4,300세대

보금자리주택 전환…내년말 공급

전세대 에너지 절약형 … 서민 내집마련 도움

광주시 효천 2지구 4천300여세대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돼 이르면 내년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광주시 남구 효천 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해 개발키로 하고 27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광주시 남구 노대동·행암동·송하동 일대 67만6천㎡에 4천304세대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이 단지에 서민들을 위한 분양 아파트를 비롯, 분납형 임대·국민임대·10년 임대 등 지역민들의 소득수준과 선호도를 고려해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효천 2지구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005년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지역으로, 토지주택공사는 당시 ▲전용면적 60㎡이하 2천478세대 ▲60~85㎡이하 1천24세대 ▲85㎡초과 749세대 ▲단독주택 52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또 국민임대 2천429세대(전용면적 36~59㎡), 10년 공공임대 545세대(전용면적 84㎡), 공공분양 432세대(전용면적 84㎡) 등 외에 분납형 임대·전세형 임대 등도 공급된다.

다만, 국토부는 사업기간 단축과 직할 시공 등을 통해 분양가를 주변 시세에 비해 최대한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광주의 경우 주변 시세가 낮은데다 택지개발 비용을 감안하면 이른바 '반값'아파트는 공급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내 모든 주택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친환경 주거형태인 '그린 홈'으로 건설되며 향후 지역 수요 및 요청 등을 고려해 용적률을 높여 공급세대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용적률은 180~200% 이하가 적용되지만 보금자리주택지구는 220%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국토부는 또 지구별 사업진행 속도가 다른 점을 고려해 사전예약 없이 착공과 동시에 분양하기로 해 광주 효천 2지구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청약이 시작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조성 중인 광주시 남구 진월동 광주대학교 앞 효천 2지구. 국토부는 이 일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 내년 말부터 공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임대주택 위주의 공공주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저렴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선호에 맞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개념으로, 임대비율은 종전(국민임대지구 50%)보다 줄어드는 반면 중소형 공공주택 및 민영 중대형 분양아파트 물량을 늘릴 계획이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렴한 중소형 공공분양 주택을 확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상한 물가, 수상한 업계

밀가루·원유 등 수입가 내려도 가격은 올라

수입가격은 내렸는데도 소비자가격은 상승하는 품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밀가루, 원유, 제지용 펄프 가격은 품목에 따라 1970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으로 하락했으나 관련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크게 올랐거나 내림폭이 크지 않은 상태다.

26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1~9월 밀의 수입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평균 27.7% 떨어졌다. 이 하락폭은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71년 이후 1~9월 기준으로 가장 크다. 그동안 하락폭이 가장 컸던 해는 1999년(19.4%)이었다. 월별로 밀 수입가격 상승률은 작년 동월대비 기준으로 2월 -35.9%, 4월 -32.4%, 6월 -21.8%, 8월 -26.0%, 9월 -31.0% 등이었다.

그러나 밀가루 소비자가격은 같은 기간에 비해 7.9% 떨어지는데 머물렀다. 월별로는 2월 -3.3%, 4월 -5.1%, 6월 -17.0%, 8월 -6.0%, 9월 -9.6% 등이었다.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는 품목의 소비자물가를 들여다보면 1~9월 기준으로 라면은 3.6%, 국수는 6.0%, 부침가루는 10.0%, 식빵은 15.6%, 빵은 6.9% 각각 올랐다. 비스킷은 22.0%, 스낵과자는 7.5% 각각 상승했다.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는 외식비로는 자장면 2.0%, 짬뽕 2.2%, 칼국수 3.4%, 라면 5.9%, 피자 5.6% 등의 비율로 각각 올랐다.

원유 수입가격은 지난 1~9월에 평균 31.4% 떨어져 1986년(-41.3%) 이후 23년만에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자동차용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10.2%, 경유는 16.2% 각각 내리는데 그쳤다. 국내항공료는 5.0%, 국제항공료는 10.7% 각각 떨어지는데 머물렀다.

이에 따라 당국은 생필품 가격에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LPG, 우유, 빵, 소주, 휴대전화, 영화관람료, 주유소 등의 담합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며 이 중 LPG는 담합한 것으로 판단해 조만간 과징금 부과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땅값 넉달째 상승

9월에도 각 0.15%, 0.12%씩 올라

광주·전남 땅값이 미미하지만, 4개월째 상승세다.

2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9월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땅값은 0.15% 올라 전월(0.06%)보다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광주 땅값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7개월 연속 떨어졌으나 지난 6월 상승세로 돌아선 후 지난달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9월까지의 누계 지가변동률은 -0.32%로 여전히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주 땅값 상승률은 2005년 1.86%에서 2006 1.44%, 2007년 0.94%, 지난해 -0.89% 등으로 해마다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달 광주지역 토지거래량은 4천732필지 88만1천㎡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필지 수로는 11%, 면적으로는 22.4% 각각 증가했다.

전남지역도 지난달 0.12% 오르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인터넷 주소 내년 한글로도 서비스

알파벳으로 표기해온 인터넷 주소가 내년 중반부터는 한글로도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로드 벡스트롬 CEO는 20일 I-CANN 서울회의 개막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존 알파벳 중심에서 여러 언어로 인터넷주소를 이용할 수 있는 다국어 국가최상위도메인(IDN)을 도입하는 안건이 오는 30일 이사회에서 승인된다면 내년 중반께 (서비스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벡스트롬 CEO는 이사회에의 승인 가능성에 대해 "승인을 위한 과정이 무난히 진행되고 있다고 느낀다"면서 "승인될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사실상 승인을 기정사실화했다.

IDN 도입은 알파벳으로 구성된 기존 도메인을 '한글. 한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로 '광주일보. 한국(대한민국)'을 입력하면 광주일보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벡스트롬 CEO는 "IDN이 도입되면 자판입력을 1천억 번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자국의 언어로 인터넷주소를 편히 쓸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이사회 승인이 떨어지고, 예정대로 일정이 진행된다면 내달 17일부터 한글 도메인 등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필상기자 kps@·연합뉴스